

## 남산근린공원 50년 만에 주민 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하며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탄생



강화 남산근린공원 준공식



남산근린공원

군은 29일 '남산근린공원' 준공식을 갖고 공원을 전면 개방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군수, 박남춘 인천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남산근린공원은 지난 197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50년간 방치되어 왔다. 이에 군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속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해, 장기미집행공원인 관청근린공원이 지난 15일 문을 연데 이어서 이번에 남산근린공원을 준공했다.

'남산근린공원'은 부지면적 103,240㎡에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해 ▲산책로 1.2km ▲자연을 닮은 쉼터 ▲운동시설 4개소 ▲자연형 놀이터 2개소 ▲광장 내 음악분수 등의 시설이 조성됐다.

특히,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완만하게 조성했으며, 산책 중 쉬어갈 수 있는 풍경데크, 정자, 파고라를 충분히 설치했다. 산책로와 어우러진 녹지공간은 계절의 변화를 고려한 수목을 식재해 사철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넓은 공원 광장에는 강화군 최초의 음악분수대를 조성했다. 낮에는 음악에 맞춰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 넘치는 물줄기와 밤에는 조명과 어울려진 분수 향연으로 군민들이 온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남산근린공원 준공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반세기만에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활 속 SOC 시설을 대폭 보강해 정주 여건과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강화군, 북문 벚꽃 길... 3년 만에 개방



군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간 벚꽃 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온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방향 걷기로 운영되며 차량통행은 제한된다.

'북문 벚꽃 길'은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에 이르는 800미터 구간에 수령 50년이 넘는 아름드리 벚꽃이 터널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또한, '북문 벚꽃 길'은 고려궁지를 중심으로 하는 강화읍 원도심 관광코스와 연결된다. 벚꽃의 낭만과 함께 강화성당, 조양 방직, 소창체험관, 왕의 길 등 원도심 골목을 보도로 이동하며,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피는 '북문 벚꽃 길'은 젊은 연인들을 비롯하여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찾는 강화군의 숨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야간에 은은하게 변하는 조명과 어우러진 벚꽃은 느긋한 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북문 벚꽃길을 걸으며 봄의 정취를 잠시나마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안전한 벚꽃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확 높아진~ 농·어업경쟁력으로 풍요로운 농·어촌 실현

## 농·어업 경쟁력 혁신 선도, 지속발전 선순환 체계 확립



지난 2019년부터는 ‘하우스시설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하우스 신축 시 작목별로 필요한 기본시설(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원예관련 전문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농자립에 돕고 있다.

또한, ‘연동하우스’ 보급에 나서 원예시설의 규모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연동하우스’는 하우스 여러 채를 연결하고 내부 칸막이를 제거해 시설 농업의 규모화·자동화를 실현하면서도 방열 면적과 바람의 압력을 줄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원예시설현대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ICT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가 가능해 사계절 농산물 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 ■ 지속발전 선순환 체계 확립 어촌뉴딜사업 및 외포리 프로젝트 종합개발 추진

군은 어촌뉴딜사업으로 5개항(후포항, 창후항, 황산도항, 초지항, 외포권역)에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해 어촌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후포항 어촌뉴딜사업은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 70~80년대 밴딩이로 번성한 후포항의 옛 명성을 회복한 특화 어촌마을로 지난해 9월 준공됐다. 창후항, 황산도항, 초지항, 외포권역은 선착장, 방파제 신설, 주민 쉼터 조성 및 경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역사관광 콘텐츠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어항으로 조성된다.

특히, ‘외포권역’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 명소로 육성된다. 어촌뉴딜 사업으로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어구어망창고 등 어촌기반시설을 대폭 보강되고, ▲관광시설 정비, 바다쉼터 조성 ▲수산물직판장 새우젓 상징 특화 ▲삼별초 역사광장 정비 ▲갈매기 생태학습장 등이 조성된다. 또한, ‘외포리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 ▲관내 수산·어업인이 참여하는 ‘종합어시장’을 25년까지 건립하고 ▲퇴역함정을 활용한 함상공원을 조성해 최초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 ■ “모두가 잘사는 농·어촌 ‘풍요로운 강화’ 건설”

군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첨단 농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판로 걱정없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마케팅과 유통망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을 강화군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군은 농·어업 분야 예산규모를 지난 2017년 424억 원에서 2021년 9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시키며, 경쟁력 있는 농·어업 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확대 지급을 위해 추경에 57억6천만 원을 편성하고, 농·어업인을 전국 최고로 대우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봤다.

### ■ 가물에도 물 걱정없는... 한강물 24시간 공급체계 구축

군은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관내 전 지역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화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사업비 718억 원을 투입해 저류지 2개소, 양수장 17개소, 송수관로 78km 등을 구축해 한강물을 관내 전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하루 한강물 공급량이 5만 6천 톤으로 대폭 늘어나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체계를 갖추게 됐다. 또한, 논농사뿐 아니라 밭농사에도 한강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24시간 공급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되는 ‘한강물 강화전용 송수관로 사업’은 농림부 농업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의 기본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상습 가뭄 지역인 삼산면 매음리 일대에는 ‘매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신규지구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 ■ 시설원에 첨단농업육성.. 사계절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자립 ‘뒷받침’

군은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계절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Photo NEWS

#### 현장행정



강화군 토마토연구회 청년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현장 확인



화개정원 준공식



강화 남산근린공원 준공식



## 강화도의 역사성·역동성 상징하는 랜드마크 탄생 강화군,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준공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준공

강화군이 강화대교 입구에 역사 고도(古都)와 호국을 상징하는 관문형 조형물을 설치했다.

군은 28일 유천호 군수를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군 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화대교 관문 상징조형물'은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해 48국도를 횡단하는 높이 11.5m, 너비 40.2m의 규모의 조형물이다. 1232년 몽골군 침입에 대항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한 강화산성을 모티브로 역사 고도(古都)와 호국을 상징하면서, 강화군의 미래비전을 부각하도록 설계됐다.

상징조형물 서까래 등 외벽에는 LED로 미디어 파사드 기능으로 강화군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내부는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료를 전시했다. 또한, 조형물 상단을 육교로 만들어 강화전쟁박물관을 시작으로 강화외성 진해루, 구한말 해군사관학교 통제영학당지와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며, 연미정과 한강하구 너머 북녘을 마주하며 걷는 철책길을 통해 평화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과 연결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대교 관문은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강화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며 "이번 상징 조형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교동도에 수도권 최고의 화개정원! 휴식형 가족공원! 정원같은 공원! 탄생 임박



화개정원 준공식

강화군은 1일 화개정원 내 문화광장에서 '화개정원 조성사업(1·2단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대한노인회 장기천 강화군지회장, 교동면 이장단을 포함한 기관단체장,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은 교동도 화개산 213,251㎡에 총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하는 민선7기 최대 역점사업이다.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이 들어서며, 온 가족이 정원같은 공원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된다.

화개정원에는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1단계 사업으로 역사·문화·평화·추억·치유의 5색 테마정원을 만들고, 이번에 2단계 사업으로 석가산, 물과 폭포, 암석원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군민들이 기증한 수목으로 정원을 꾸며 그 의미를 더했다. 향후, 계절 수목과 초화를 식재하고 야간 경관을 더해 품격 높은 수도권 최고의 휴양시설로 올해 상반기 중 전체 사업이 완료된다.

화개산 정상의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는 강화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비상을 기본 컨셉으로 군조인 저어새의 긴 부리와 눈을 형상화했다. 전망대에서는 한강하구 및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과 북녘 땅에 흐르는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모노레일을 통해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2km를 궤도 열차로 편하게 이동하며, 화개정원의 빼어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화개정원 사업완료에 맞춰 함께 개장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동도는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로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서해와 한강, 예성강이 만나는 생태계의 보고이지만 어로 활동을 할 수 없어 침체되어 왔다"며 "이번 화개정원을 수도권 최고의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생활 수준도 최선을 다해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 ‘교동도 전역이 경관 명소화된다’ 강화군,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수립

군은 민통선과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타 지역보다 낙후된 교동면의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소득·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은 교동면을 화개권역, 수정권역, 울두권역으로 나누고, 동서발전축, 수변경관축, 접경지관리축, 산림보전축을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고 주변 지역으로 파급성이 큰 경관거점을 선정해 명소화하는 계획이다.

군은 우선 2022년도 사업으로 화개권역의 ‘고구저수지’를 경관거점으로 선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섰다.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어둡고 캄캄한 야간의 저수지 데크길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민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화개권역의 화개정원 및 대룡시장과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지난 25일 교동면사무소에서 교동면 마을이장, 부녀회장 및 관련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동면 경관마스터플랜’을 직접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고구저수지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로 경관거점을 선정해 교동도 전체를 명소화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고 주민 소득·생활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_교동도 경관마스터플랜 수립

## 4월 간부회의서 국비사업 집중 점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선도산업 육성에 총력 강화군, 2023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사활'



강화군이 4일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과 23년도 국비확보 계획을 점검했다.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지혜의 숲 도서관, 관청공원, 북부문화센터, 한겨레 열 체험관, 행복센터, 기독교 역사 기념관, 관문 상징조형물, 남산공원, 화개정원 준공식에 이르는 연이은 행사에서 엄격한 방역대책 하에 안전사고 없이 잘 대처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역점사업과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올해 1,758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가한 2,098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 ▲긴급복지 ▲노인사회활동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장애인복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 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한 ▲근린생활형 체육시설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전통시장 부설주차장 ▲저온유통체계 구축 ▲농업용수 공급 확대 ▲선착장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군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기조에 발맞춰 중앙부처와 인천시의 투자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사업별 사전절차 이행, 부처별 사업 설명, 국회 방문 등 예산 신청부터 확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계획한 사업들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뎛발이 닳도록 중앙부처와 인천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지역 현안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강화군, 강화형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한다

## 현장 중심의 스마트 농장·치유농업 교육, 농업 경쟁력 강화



강화 미래농업센터 구축현장 설명회

강화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들이 농촌에 모여들 수 있는 선순환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에 나섰다. 군은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에 사업비 17억5천만 원을 투입해, 군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 미래농업교육관'과 '농업 신기술 시범포'를 올해 연말까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미래농업교육관'은 (舊)약썩웰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치유농업을 위한 교육장, 체험실습실, 실내정원, 농업인 카페 및 휴식공간 등이 조성된다.

'농업 신기술 시범포'는 17,384㎡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ICT 활용 스마트온실, 과수 연동하우스, 치유정원, 치유온실, 현장실습교육장 등 다양한 작목에 대해 현장중심의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일 미래(치유)농업센터 구축 및 향후 운영방향을 농업인에게 직접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농업이 미래산업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할 것"이라며 "세대별 연령별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강화군, 청년농업인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

##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 및 기술자립 지원 강화

군은 강화군토마토연구회와 함께 정착 초기 또는 정착에 접어든 청년농업인이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을 오는 7월 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고소득 작목인 토마토 농업발전에 힘쓰고 있는 토마토연구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토마토 생육시기별 작물관리요령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애 예방요령 ▲농장 맞춤형 전문가 현장컨설팅 ▲농산물 가공·판촉(마케팅)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경영진단 분석, 농식품 창업교육 등으로 청년농업인이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된다.

관내 강화섬토마토 재배면적은 37ha로 시설원예작물 중 고추 다음으로 면적이 크다. 또한, 평당 4~5만원 수준의 높은 농가소득으로 매년 2ha씩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30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문기술교육'에 참석해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농업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확대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을 강화해 청년 농업인의 기술자립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에만 '첨단농업육성사업'으로 17억 원을 투입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작목별로 필요한 기본시설(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수확물운반구 등)을 일괄 지원하는 '하우스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시설 농업의 규모화·자동화에 앞장서고 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 토마토연구회 청년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현장 확인



# 취임사

## 就任辭



장기천  
강화군 노인회장

안녕하세요!

오늘 강화군 노인회 제16대 회장 취임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풍요로운 강화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고 어르신 모시는 일을 최우선에 두시는 유천호 군수님, 인수위원회등,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또한 인천시 43만 노인회를 대표하시는 박용렬 연합회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노인회 발전을 위하여 뜻과 마음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는

13개 읍·면 분회장님과 이사님, 분회사무장님 그리고 237개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로당회장님과 회원여러분!

2018년 3월 21일 제15대 강화군 노인회장에 취임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날들이 지나, “세월이 우수와도 같다”는 옛 분들의 말씀이 새삼 와닿게 느껴집니다.

처음 취임이후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회원 화합과 지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뜻하지 않은 질곡 속에서도 유 천호 군수님의 신속한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희망을 지켜 갈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저는 지난 1월 7일 제16대 회장선거에 단독후보로 재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화군은 노인 인구 비중이 34퍼센트로 전국 최고의 장수촌이며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일찍이 1978년부터 노인대학을 개설운영하며,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출된 졸업생 3천7백여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에 앞장서며 존경받는 지도층의 역할을 다하고 계심으로 우리군의 새로운 전통이며 자랑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강화읍과 남부지역 2개소의 노인복지관에서는 34개 과목 50개 강좌를 운영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내 고장 강화를 지키고 가꾸어온 주역 이며, 산 증인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노인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감은 물론 어르신들의 노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유 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1일

강화군 노인회장 **장기천** 배상

#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고석현 의장 취임

## 강화군 최초!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의장 당선



고석현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의장

인천농협 조합운영협의회 신임 의장에 고석현 강화남부농협조합장이 취임했다.

인천농협지역본부와 농협조합운영협의회는 지난 6일 관내 16개 농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석현 강화남부농협 조합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고석현 의장은 1979년 길상농협을 첫 시작으로 양도농협 화도농협 등에 근무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였으며, 2015년 강화남부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조직의 내실과 조합원의

협동정신을 고취하는 등 농민이 행복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고석현 의장은 “농업인들이 당면한 현안을 인천시16개 농협 조합장님과 일치단결해 오직 농업인의 상생화합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 ‘三代가 지키고 싶은 삼목항’ 어촌뉴딜 사업 기공식 개최

## 총 107억 원 투입, 부잔교·물양장 신설, 어업인 쉼터 등, 내년12월 준공예정 어촌마을 환경개선, 관광객·일자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공항과 가까운 삼목항에 주민들을 위한 안전시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가 생긴다. 인천광역시는 22일 중구 운서동 삼목항 일원에서 ‘삼목항 어촌뉴딜 300 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행사를 주관한 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청 관계자들과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배준영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고준수, 안병배, 조광휘, 박정숙 인천시의회 의원,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 박상길 등 중구의회 의원, 조창남 인천수협조합장, 임우진 운서 어촌계장 등 주민과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주민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방문객도 유치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사업비 1,625억 원을 투입해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19년 선정)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황산도항, 옹진군 장춘항, 자월2리항(20년 선정) ▲중구 삼목항, 강화군 초지항, 옹진군 서포리항(21년 선정) ▲중구 덕교항, 강화군 외포항, 옹진군 두무진항(22년 선정) 등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어촌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삼목항은 다른 어촌에 비해 선착장, 방조제 등 어항시설이 부족해 그 동안 주민들은 어업활동이 제약을 받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특히, 도시와 어촌을 연결해주는 ‘길목어항’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과 소통할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모두가 행복한 길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삼목항으로 되살리고자 주민들의 하나 된 마음을 모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에 공모 신청해, 2020년 12월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삼목항 어촌뉴딜 사업은 사업비 약 107억 원을 투입하여 부잔교·물양장 신설, 진입로 정비·안전시설 설치는 물론, 어업인 쉼터·삼목마당·탐방로 조성, 회센터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추진하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삼목항은 공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도시와 어촌을 이어주는 길목어항인 만큼, 공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어업시설들이 확충되고 방문객과의 소통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사업이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어촌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 석남에서 청라가는 도시철도 7호선 연장

## 23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 착공식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7km, 7개 정거장 ... 2027년 완공  
청라 ~ 서울 구로 까지 42분, 강남은 환승 없이 77분

15년을 기다린 석남역 ~ 청라국제도시역 간 도시철도 공사가 드디어 착공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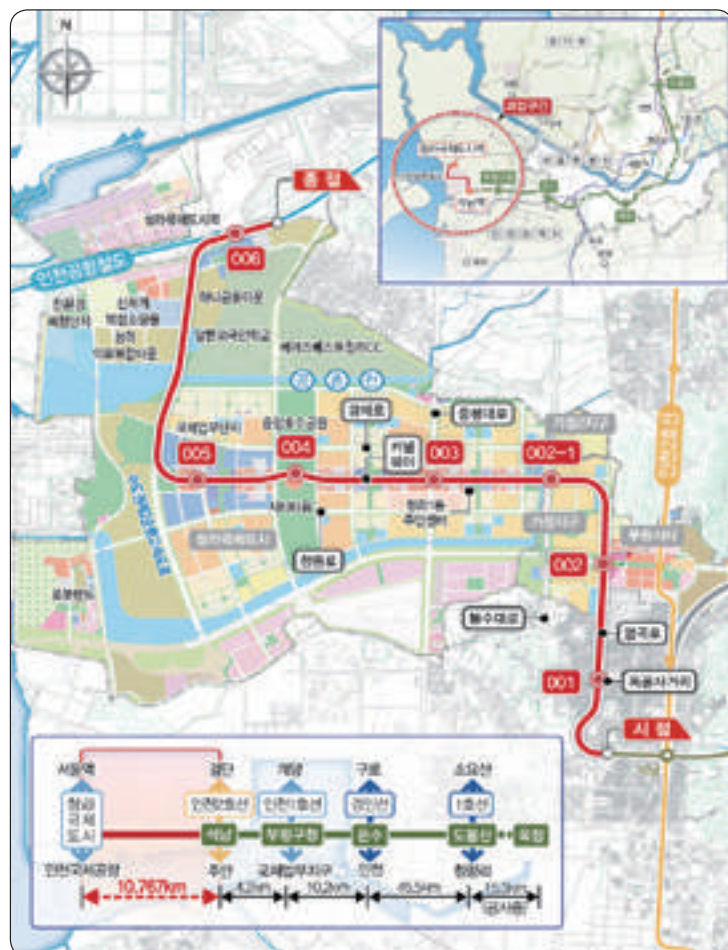
청라연장사업은 2007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구상에 포함된 지 15년 만에 드디어 착공되는 청라국제도시 지역 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 5,739억 원이 투입돼, 서구 석남동(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길이 10.77km(정거장 7개소)로 인천 서북부 지역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구로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논현역)까지는 환승 없이 77분 내에 오고 갈 수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청라연장선이 인천과 서울을 보다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조성 중인 제3연륙교와 더불어 청라국제도시와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사 중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이고 2027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권주형 기자





# 일산대교 무료화, 민관이 전략적으로 공동대응기로

## 지난 30일, 김포시와 고양시, 5개 시민단체 모여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협력 협약 체결



지난 30일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고양시(시장 이재준), 김포시와 고양시의 5개 시민단체가 고양시 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에는 김포시 시민단체인 금빛누리시민연합회, 원도심층연합회, 수변단지연합회, 김포검단시민연대와 고양시 시민단체인 일산대교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김포시, 고양시와 협약 참여 시민단체는 ▲일산대교 관련 정책 공유와 대책 마련 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시

민공감 확산운동 추진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시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관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 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김천만 위원장은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가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날 참여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등을 통해 경기도와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무료화 촉구 집회 등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동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의 가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4월중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①



### 고촌도서관 도서관주간 작가와의 만남

##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운영

김포시 고촌도서관(관장 소영만)은 제58회 도서관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김경희 작가와의 만남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를 4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송(ZOOM)으로 운영한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을 작가 1인극으로 감상하고 퀴즈를 통해 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비교해본다. 그리고 그림책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강좌 접수는 7~10세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고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gochon/index.do>)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31-5186-4846)로 문의하면 된다. ①

- 권주형 기자

고촌도서관 도서관주간 작가와의 만남

### '신통방통 세 가지 말'은 무엇일까요?

신통방통 세 가지 말

<b>일시</b>	2022년 4월 18일 (월) 15:30~17:00
<b>대상</b>	7~10세 어린이 20명
<b>운영방법</b>	온라인 ZOOM강연(비대면)
<b>모집기간</b>	2022년 4월 4일 (월) ~ 선착순 마감시
<b>접수</b>	고촌도서관 홈페이지 > 문화행사 > 강좌/교육
<b>문의</b>	☎ 031-5186-4846

고촌도서관  
GOCHON LIBRARY



# 강화군,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 사당 '충장사' 준공

## 충장공 어재연과 무명용사의 호국정신 보전


강화군이 신미양요에서 순국한 충장공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 351명의 위패를 모시는 '충장사'를 31일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사)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정신을 기리는 사당 건립을 축하했다.

'충장사'는 불은면 덕성리 47-3번지(광성보 일원) 1,770㎡ 부지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사당, 재실 등을 갖춘 연면적 81㎡ 규모의 전통한옥 건축물로 건립됐다.

이번 '충장사' 건립으로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의 위패를 사당에 안정적으로 모시고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추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어재연 장군과 무명용사를 기리는 '광성제' 제향은 음력 4월 24일에 광성보 쌍충비각 앞에서 봉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충장사에서 개최된다.

어재연 장군은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자 선봉장이 되어 광성보를 수자기를 높게 걸고, 미군에 대항해 결사항전했다. 어재연 장군을 비롯한 350여 명의 조선군은 끈질기게 저항했으나 미군의 우세한 군사력에 밀려 광성보는 끝내 함락됐다. 미국 공사 로우의 보고서에는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장렬하게 싸우면서 아무런 두려움없이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가 전사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하여 이보다 더 장렬하게 싸운 국민을 다시 찾아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장사 건립으로 광성보가 근대 역사적 사건의 현장임을 널리 알리고, 많은 이들의 호국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재연장군 충장사 준공식

# 인천 송암미술관 '봄의 정원'을 시민과 함께...

## 고미술품 전시, 전통놀이·탁본 등 체험놀이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에서 4월 5일(금)부터 5월 22일(일)까지 <봄의 정원 in 송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암미술관은 아름다운 소나무 정원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보석과 같은 곳이다. 특히, 송암미술관은 쉽게 접하기 힘든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봄에는 광개토왕비를 품고 있는 아담한 정원에 벚꽃이 만발해 시민들이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기회에 송암미술관을 방문해 '봄의 정원 in 송암'에 참여한다면 전시실의 작품을 즐기는 동시에 정원에 즐비한 식물들과 광개토왕비를 볼 수 있는 좋은 나들이가 될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광개토왕비 탁본 체험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그림그리기는 밑그림이 있는 도화지에 크레용이나 물감을 자유롭게 칠하고 민속놀이 도구를 통해 옛 놀이도 즐길 수 있다. 이어 한지를 받아 탁본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가족 대항 '알까기' 대회도 개최한다.

송주형 송암미술관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송암미술관에 방문해 미술품을 감상하고 아늑한 소나무 정원 체험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암미술관 정원체험프로그램

## 소나무 정원

in 송암

- 대상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및 인천시민
- 내용 | 정원그리기, 연날리기, 야외유물해설  
전통놀이, 탁본체험 등  
가족 대항 알까기 대회 : 5월 5일 오전 10시~12시  
사전접수 요망(4월 25~29일, 12팀, 선착순)
- 장소 | 송암미술관 야외 정원
- 기간 | 2022. 4. 5 - 5. 22
- 문의 | 032)440-6777, 6781

행사기간 ▶ 4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월요일 휴관)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  
기타문의 ▶ 송암미술관 ☎ 032) 440-6777



기고

## 4월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향교서실 들어서 커피를 타 놓고  
넓은 유리창에 별이 좋아 커피 향은 모락모락

‘근사하잖아 아무도 오지 않고!’

떡물을 한껏 풀어서 一筆揮일필휘 ‘之’字를  
개폼으로 호흡을 멈추고 이견 寂滅적멸이다  
싶었는데

산 독에서 진달래 핀다고 고래고래

청각장애 댕통이 놀라서, ZZZZ,,,  
昏絶혼절한 새 흑두루미 화선지를 물고  
날아가는 거야

4월입니다. 4월 1일에는 음력 3월 초하루였기 때문에 강화향교에서는 분향례가 봉행되었습니다. 날씨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4월이라는 분위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분은爽快愉快상쾌유쾌했습니다. 남쪽 마을에서는 꽃소식이 연일 전달되고, 우리네 강화도 주변에도 생강나무 꽃 피고, 자전거 운동장에는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곧 萬化方暢만화방창의 꽃 소식이 닥칠 겁니다. 하지만 꽃소식과는 달리 우리 주변의 전하는 소식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論語』의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子曰자왈, “弟子入則孝제자입즉효하고, 出則弟(悌)출즉제하며, 謹而信하며, 汎愛衆하되,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어든, 則以學文이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는 집에 들어와서는 孝道효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恭遜공손하여야 하며, 慎重중중히 행동하고, 信義신의를 지켜야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먼저 어진 이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 남는 힘이 있다면 글을 배워야 한다.(『學而』 6)

“其爲人也기위인야, 孝弟요. 而好犯上者 鮮矣이호밤상자 선의. 사람이 됨됨이가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도 윗사람에게 마구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드물다.”(『學而』 2)

“弟子제자”는 어린 사람, 젊은 사람, 또는 청소년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에게 孝효하고, 밖으로 나가면 이웃 어른들에게 ‘弟(悌제)’ 즉 공손히 행해야 한다. 공부보다는 우선적으로 젊은이들이 행해야 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목인 것입니다. 요즘 孝효는 별달리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대답이 柔順유순하면 됩니다. 『四字小學』에는 “唯유”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와 같은 말입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하시면 ‘예’하고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弟(悌제)’는 형제간의 友愛우애이기도 하지만 어른에 대한 배려입니다. 五倫오륜의 ‘長幼有序장유유서’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男女老

少남녀노소 尊卑貴賤존비귀천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입니다. 우리는 단지 ‘相互尊重상호존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계층 간의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공중도덕의 질서와 配慮배려입니다. 사회적 평등, 정의 공정을 부르짖는 시대에 어른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젊은 사람이라 불이익을 감내하라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도 학업, 취업 문제 등으로 이미 사회 속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만이 우리 사회의 和解화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무시내지는 愬視괄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 목살을 잡는 某법무차관의 소식은 정말 우리를 분노하기에 충분한 사례입니다. 요즘 지하철에서의 젊은이들과 노인들과의 말다툼, 몸싸움, 급기야는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전화기로 머리를 때려 피가 狼藉狼藉하히 흐르는 모습을 봤을 때, 이는 놀라움이 아니라 驚愕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사죄커녕 “나 경찰 뺨 있어” 외쳐대는 뻔뻔한 꼴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一例일례다하고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균관 某교수는 이 문장을 한 시간 내내 강의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습관과 버릇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교육이 선행되지 않은 고질적인 병폐로 보는 것입니다. 儒家의 공부는 가족 간의 소통, 사회 공동체의 질서, 모두가 孝효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孝는 百行백행의 根本이다.”라고 것입니다.

시인 엘리엇의 시 「황무지」 “4월은 잔인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박목월 선생의 시 우리의 가곡 ‘4월의 노래’에는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人倫의 불꽃 역시도 4월의 꽃들과 함께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간곡합니다. ▣





## 강화군 양사초등학교, 단비같은 동화책이 내리다 2022년 1분기 봉사왕 선정

강화군 양사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메마른 아이들의 정서에 단비같은 동화책이 내렸다.

지난 28일 양사초등학교 전교생에게 동화책 3종 38권(50만원 상당)이 기탁되었다. 양사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여주 주무관이 문화생활이 어려운 접경지역 아동들을 위해 그 간의 공모전 상금을 모아 연령에 맞는 우수 동화책을 구입해 기탁을 한 것이다.

이여주 주무관은 작년 7월에도 동화작가 등단(샘터동화상) 기념으로 강화도서관에 115권(1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바 있다.

이여주 주무관은 “비록 몇 권 안 되는 동화책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다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자 양사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동화책을 기부해 준 이여주 주무관에게 감사드리며, 관내 어린이들이 소중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사면\_양사초등학교 도서관

## 강화도서관, 북스타트 책 꾸러미 선물 우리 아이 첫 책, 강화군과 함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월 1일부터 영·유아 대상으로 책과 함께 생애를 시작하는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으로 아기들에게 그림책을 지원해 책과 더불어 즐겁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다.

군은 관내 미취학아동(8세 이하)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그림책 2권과 가이드북을 넣은 책꾸러미 가방을 선착순 무료 배부한다. 희망자는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를 지참하고 강화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도서관(☎ 032-932-8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와 부모가 그림책을 통해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 기관지 천식 및 폐 건강을 지키는 배암차즈기 곰보배추



곰보배추(배암차즈기: 쌍떡잎식물 통화식물목 꿀풀과 배암차즈기속의 두해살이풀)

땅바닥에 붙어 난 모양이 배추를 닮는데다 잎이 울룩볼룩한 모양 때문에 곰보배추 또는 문둥이라고 부르지만 정식명칭인 국명은 배암차즈기인 곰보배추라 한다. 꽃모양이

마치 뱀(배암)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차즈기라는 이름은 꿀풀과 차즈기속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데 차즈기는 이를 의미하는 한자 紫蘇(자소)가 ▶ 차.소기 ▶ 초.조기 ▶ 차.조기 ▶ 차즈기로 음운이 변화되어 형성된 말.)

### 배암차즈기 곰보배추의 효능

플라보노이드 등 페놀화합물 다량 함유,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페놀화합물은 생리작용과 대사조절에 관여하며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에 좋으며, 곰보배추의 추출물은 폐 염증 감소와 기관지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곰보배추 추출물을 섭취후 기관지 염증이 24% 감소했다고 한다.

곰보배추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의 노폐물과 독소를 없애주며 어혈을 풀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여 건강한 혈관유지 및 여성들의 생리불순 혹은 부정출혈 등 다양한 부인질환에도 효과가 있고 뼈의 골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뼈를 건강하게 하고 골다공증 치료 및 건강한 피부, 체질개선에도 이로운데다 아토피나 건선 혹은 접촉성 피부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

※ 곰보배추는 밝혀진 부작용은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므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당량 섭취 권장

강화여고 '책마루 도서관'과 작은책방 '낙비의 책수다'의 동행

점자그림책의 한 문장을 만들고,  
그림책 선물도 받아요!

- 70명 선착순 -

**PAY IT FORWARD!**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학생,교사,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점자그림책 제작 캠페인

• 언제 : 2022.04.09.(토)~04.30.(토)  
오전11시~오후5시(수요일 휴무)

• 장소 : 낙비의 책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소 **청소년 고민 함께 나눠요!**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 맞춤형으로 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강화군은 청소년의 상담·보호·자립 등을 지원하는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현주)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교 폭력,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가족·친구관계 등 다양한 고민에 대해 개인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해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자신감 회복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주 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언제든지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보호자(학부모, 교사 등)  
 상담전화 ▶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932-1388



### 군민안전스티커

마음이 힘들때 전화주세요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2) 932-4093**

월~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 2022년 상반기 광견병 무료접종 안내

접종기간 3. 28.(월) ~ 6. 12.(일)

접종대상 관내 3개월령 이상의 개  
 \* 연 1회 접종 의무

접종방법 읍면별 출장 접종 혹은 지정병원 방문  
 \* 자세한 출장 일정은 읍·면사무소에 문의

### 지정병원

지정 동물병원	연락처	지정 동물병원	연락처
베스트동물병원	934-9340	종합동물병원	934-2570
디디동물병원	719-7533	서울동물병원	933-2729
천마동물병원	933-6858	Dr.O 동물병원	562-0075

\* 원내 접종 시 동물등록도 함께 진행 가능, 방문 전 예약전화 권장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주세요!

강화군청 축산과 가족방역팀 032)930-4534